

교회 소식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주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과 가정,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오늘 간식을 섬겨 주시는 홍성철/홍영순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임대영 집사 (시 121)
- 2월 안내: 이영순 권사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 English Service: 2:00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am, YouTube
-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 중 · 고등부 (Youth Group) 예배: 2:00pm, Zoom
- 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성경 공부 및 모임

- 풍요로운 삶: 수요일 9 am 아몽크 다락방
- 풍요로운 빛: 주일 오후 3:30 pm 아몽크 다락방
- EM 잠언 묵상: TBA
- EM Bible Study: TBA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현주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와 새로운 회복을 간구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전쟁과 팬데믹 가운데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의와 화평이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1 국 장영호,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크로아티아 순돈호,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제23권 9호

2023년 2월 26일

<2023년 문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14)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2:00pm> Presi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Presider

Word of God----- **Acts 2:42-47**----- Presider

Sermon ----- **“Devoted to Fellowship,”** ----- Pastor Kim
Devoted to One Another”

Reflection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기도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하늘에 가득 찬” -----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98(35) “속죄하신 구세주를” ----- 다함께
Hymn

대표기도 ----- 시편 32 ----- 이영순 권사
Prayer

찬양 ----- “오두막집도 만족해요” ----- 세광찬양대
Choir Praise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요 3:1-16 ----- 인도자
Word of God

설교 ----- “**이처럼 사랑하사**”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304(4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설교 말씀

성전 안에서 (요 2:13-25)

이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으나, 포로에서 돌아와 지은 성전에는 임하지 않았던 영광, 선지자들의 환상 가운데 약속하신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으시고 영광을 보이실 일의 시작입니다(1:14). 빛이 비치니 그림자가, 진짜가 오니 가짜가 드러납니다. 46 간 지은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과 풍성한 제물이 넘쳐도 영광이 없습니다. 흠 없이 구별하여 드릴 소와 양 제물이 돈 주고 사고 파는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갈망을 돈 벌이로 이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표시로 성전세를 드러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규격에 맞는 동전을 바꾸는 요식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교회에 오신다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화려한 건물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온전히 드러진 헌신과 구별된 정결, 가난한 이를 돌보는 사랑을 보시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없이 살다가, 정해진 날 격식에 맞는 예배 헌금 드러 면죄부 받으려는 속셈을 보시겠습니까?

너무 심한가요? 예수님도 같은 도전을 받았습시다. “얼마나 잘났다고,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격을 설명하지 않았습시다. 우리 대신 무너지셨습시다. 이날 부으신 진노와 채찍은 실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인해 받으신 징계와 채찍입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되셨습시다.

왕 삼으려는 욕심을 아시고 피하셨습니다. 그 속에 들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버리신 게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참 성전 삼으셔서 그 속에 오셨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녀들이 모인 집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게 하십니다. 큰 건물도, 많은 선한 일도, 멋진 예배도, 바른 교리도 아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영광입니다.

예수 믿고 자녀가 됩시다. 자녀답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앞에 삽시다. 장삿속으로 드리지 말고 자녀가 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를 베푸실 것입니다.